
**2009 KOIMA 동남아시아 통상사절단
베트남(Vietnam) 정보**

2009. 8.

**한국수입업협회
국제통상팀**

목 차

I. 베트남 개황	1
II. 베트남 경제 현황	6
III. 베트남 산업 구조	5
IV. 베트남 수출입 현황	11
V. 한-베트남 교역 현황	13
VI. 對베트남 한국기업 투자 현황.....	15
VII. 베트남 비즈니스 Tips	17

베트남 개황

가. 베트남 개관

국 명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행정 구역	5개의 중앙 직할시와 59개 성으로 구성
독립 일	1945.9.2
면적	약 329,314Km ² (한반도의 약 1.5배), 남북1,700Km, 해안선 3,200Km, 경지 면적 21%
기후	아열대(북부), 열대몬순(남부)
수도	하노이(Ha Noi, 356만 명, 2008년 기준)
인구	86.16백만(2008년 기준, 남: 42.3백만, 여: 43.8백만, 약 72.1% 농촌 거주)
주요 도시	호치민(684만 명, '08), 하이퐁(약 182만 명, '07), 다낭시(약 80만 명, '07)
민족	비엣족(깡족, 전인구의 89%), 타이족, 화교(약 100만), 크메르족 등 53개 민족
공용어	베트남어
문맹률	7%
종교	불교(80%), 가톨릭(10%), 카오다이교(유교, 불교, 도교의 혼합종교) 등
화폐 단위	베트남동(Vietnamese Dong, VND로 표기)
환율	16,939동(VND)/US\$(2009.5.4 기준)
시차	2시간 늦음(G. M. T + 7시간)
외교 관계	167개국과 수교(165국 무역, 50여 개국이 베트남에 투자) (2007년 기준)
대한국 수교	'92.12.22

나. 국토

1) 위치

- 베트남은 인도차이나 반도의 동쪽에 가늘고 긴 S자형으로 동경 103°27'~109°28', 북위 8°30'~23°24'에 위치하고 있다. 북으로는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고, 동으로부터 남서쪽에 이르기까지 남중국해와 태일란드만에 면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짱' 산맥을 경계로 라오스, 캄보디아와 접하고 있다.

2) 면적

- 국토 면적은 329,314km²으로 남북한을 합친 한반도 면적의 약 1.5배 정도이다.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 1,650km에 달하며 동서 최장거리 600km, 최단거리가 48km이며 전체 해안선의 길이는 약 3,260km에 달한다.

3) 지형

- 베트남은 다양한 지형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평지와 비옥한 삼각주, 여러 강줄기가 흘러내리는 남부는 베트남의 곡창지대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북부지역은 대부분이 산악지대이다. 국토의 약 3/4 은 산악, 구릉, 고원지대가 북부와 중부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북쪽은 높고 남쪽은 낮아서 북고남저의 지형을 띠고 있다. 베트남 최고의 산은 중국 국경지대에 인접한 해발 3,143m

높이의 판시판 산이다. 하천의 경우 베트남을 가로지르는 2개의 큰 강줄기가 있는데 북부의 홍강, 남부의 메콩강이다. 티벳 동쪽에서 발원하는 4,180km의 메콩 강은 라오스, 태국 사이의 국경을 따라 흐른뒤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메콩델타를 가로지르고 있다. 운남의 고원지대에서 발원된 400km의 홍강은 중국과의 국경지대를 따라 하노이 서쪽의 좁은 골짜기를 통해 델타를 형성한 후 퉁킹만으로 흘러든다.

4) 부존자원

- 베트남은 풍부한 해안유전과 석탄, 석회석, 크롬, 티타늄, 몰리브덴, 철광석, 금, 주석, 인회석, 망간, 구리, 보크사이트, 흑연, 고령토, 석영, 각종 보석 등이 매장되어있는 자원이 풍부한 편이나 원유와 유연탄을 제외하고 경제성 보유 자원은 부족하다.

다. 국 민

1) 인 구

- 2008년 말 기준 베트남의 총인구는 약 8,616만 명으로 추정되며 남녀 성비는 남자 약 4,234만 명, 여자가 약 4,381만 명으로 여성 인구가 많다. 도시 거주 인구는 27.9%로 72.1%가 비도시 거주 인구이다. 베트남의 연령별 인구 분포는 넓은 피라미드형이다. 이는 전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특히 1980년대 전후 출생의 10대, 20대 젊은 연령층이 많다. 현재 인구의 60%가 30대 미만이다.

2) 종 족

- 베트남인은 54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엣(Viet)족이 전체 인구의 약 89%를 차지하고 있다. 그 밖에 타이(Tay)족, 타이(Thai)족, 호아(Hoa)족, 크메르(Khmer)족 등 여러 산악 소수민족 등이 있다.

3) 종 교

- 베트남 정부는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종교정책을 쓰고 있으나 실제로 베트남 정부와 공산당의 정책에 협력해야만 한다. 종교 구성비는 불교(80%), 카톨릭교(10%), 기독교(5.0%), 까오다이교(2.5%), 호아호아교(2.5%)로 되어 있다.

4) 베트남의 국민성

- 역사적으로 오랜 속국 경험과 식민지 항쟁으로 외국인 기피인식이 강한 반면, 민족 독립 유지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하며 불교승상 및 유교적 전통문화 보존으로 사회주의 체제이지만 아시아적 문화 특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북부인은 근면하고, 중부인은 인내형, 남부인은 개방적이고 낙천적이다. 자존심이 강하나 현재 경제적으로 가난한 데 따른 콤플렉스가 있다. 베트남 내 노사 분쟁은 외국 고용 주의 이해부족 및 자존심의 손상에서 비롯된다. 언론에 의한 여론의 통제가 강하고, 필요 시 언론에 의한 사상교육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일반 국민의 반응 및 생각이 동일한 편이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높고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들이 많이 활약 중이다. 베트남 전체근로자 중 여성이 50% 이상이다.

○ 존경하는 인물

- 호치민(Ho Chi Minh): 베트남 공산당 창설자, 프랑스 식민지로부터의 베트남민족 해방에 크게 기여한 혁명가이자 현대 베트남 최고의 민족지도자 “나는 조국과 결혼하였다.”는 신념으로 평생 독신으로 삶.
- 보응우옌 지압: 군사지도자, 디엔 비엔 푸 전쟁 승리로 프랑스군 격퇴(모택동, 체게바라와 함께 세계 3대 게릴라 전략가) 베트남의 사회적 문제점은 경제발전예 따른 빈부격차, 도덕적 문란(매춘, AIDS), 부패 및 뇌물관행, 직업윤리 부족 등이다.

라. 국가 조직 및 정치제도

- 베트남의 국가조직은 2개의 중요한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헌법상 국가의 최고 주권기관인 국회이며 다른 하나는 정부의 중앙행정기구이다.

1) 사법제도

- 베트남은 삼권분립을 채택하지 않고 있으나 최고인민법원, 지방인민법원 및 군사 재판소가 있으며 검찰기관은 최고인민 검찰원, 지방인민 검찰원, 군사인민 검찰원 등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국회가 최고 주권기관이기 때문에 최고인민법원장은 국회에서 선출되며 최고 인민법원은 국회에 대해 보고 의무가 있으며 특별 심리 사안이나 특수상황일 경우 국회는 특별법원을 설치할 수 있다.

2) 행정기구

- 베트남은 최고의 국가행정기구인 중앙정부는 의장(수상), 부의장, 각부처장관 등으로 구성되며 이들 구성원은 국회에서 선출되고 있으며 임기도 국회임기와 동일한 5년이다. 중앙정부는 법률 및 법령안을 국회 및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자체적으로 법령 및 명령을 공포할 수 있으며 수상령 및 부령을 공포할 수 있다. 수상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부령, 각 인민 위원회령의 중지, 취소를 국회에 제출할 수 있고 가부 동수일 경우 캐스팅보트를 가질 수 있다.

3) 국가주석: 대통령

- 베트남은 1992년 헌법개정 시 국가주석을 신설하였다. 국회에서 선출되는 국가주석은 대내외에 대해서 베트남을 대표하고, 국가방위 및 안전평의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으며 현대통령은 응우옌민치엔(Mr. Nguyen Minh Triet)이다. .

마. 행정구역

- 베트남은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 차례에 걸쳐 행정구역을 개편한 결과, 2004년 기준 정부 조직법에 따라 총 64개의 행정구역(59개성 및 5개 특별시: 하노이, 호치민, 하이퐁, 다낭, 껀터)을 두고 있다.

바. 주요 도시 및 지방성

하노이시(수도)

- 면적: 921km²
- 인구: 3,568천 명(2008년 기준)
- 주요 산업: 중공업 및 경공업
- 특징: 베트남의 수도로 남부 호치민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발전이 낮은 편이나 최근 베트남 정부의 남북균형발전 계획으로 하이퐁과 함께 급속히 성장

호치민시(구 사이공)

- 면적: 2,095km²
- 인구: 약 6,840천 명(2008년 기준)
- 주요 산업: 중공업 및 경공업을 포함한 전 산업분야
- 특징: 베트남 최대 상업도시로 경제규모 및 교역규모가 베트남 내 최대

하이퐁시

- 면적: 1,526km²
- 인구: 1,827천 명(2007년 기준)
- 주요 산업: 선박 및 운송 등
- 특징: 베트남 제3의 도시로 하노이와 함께 북부지역 경제의 주축

하띠이성

- 면적: 2,192km²
- 인구: 2,561천 명(2007년 기준)
- 주요 산업: 농·임·공업 및 건설·무역
- 특징: 베트남에 제일 많은 수공마을로 유명한 지방

빙폭성

- 면적: 1,371km²
- 인구: 약 1,190천 명(2007년 기준)
- 주요 산업: 공업(49,7%), 서비스(26,2%), 농업(24,1%)
- 특징: Noi bai 국제공항과 인접하며 Ha Noi - Lao Cai 철도선상에 있음. 빙폭 성에 Hong 강, Lo 강, Pho Day 강, Ca Lo 강의 네 개가 있어 배로 운송하기가 편함

꽝닝성

- 면적: 5,899km²
- 인구: 약 1,097천 명(2007년 기준)
- 주요 산업: 중공업 및 경공업을 포함한 전 산업분야
- 특징: 꽝닝성에는 아름다운 관광지가 많다. UNESCO에서 지정한 세계 유산문화 Halong Bay가 있는 성

다낭시

- 면적: 1,255km²
- 인구: 약 805천 명(2007년 기준)
- 주요 산업: 수산물
- 특징: 베트남 제4 도시로 최근 기존의 수산물 위주의 산업에서 탈피 중·경공업 육성

컨터시

- 면적: 2,962km²
- 인구: 약 1,154천 명(2007년 기준)
- 주요 산업: 농산물
- 특징: 베트남 최대 곡창지대인 메콩델타 중심부에 위치

동나이성

- 면적: 5,894km²
- 인구: 약 2,253천 명(2007년 기준)
- 주요 산업: 중·경공업, 화학공업, 전자산업 등 산업 전반
- 특징: 베트남 최대 산업공단 밀집지역으로 많은 제조기업 상주

빙즈엉성

- 면적: 2,695km²
- 인구: 약 1,022명(2007년 기준)
- 주요 산업: 중·경공업, 화학공업, 전자산업 등 산업 전반
- 특징: 동나이성과 함께 다수의 산업공단 밀집

베트남 경제 현황

○ 2008년 6.23%의 고성장 지속, 2009년 지속 성장 전망

- 2008년 한 해는 베트남의 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한 해로 기록되었다. 특히 WTO 가입 2년 차에 따른 급격한 외국인투자 확대, 경기과열에 따른 기록적 인플레이와 폭증하는 무역 수지 적자로 촉발된 베트남 경제위기설로 베트남 정부는 2008년 상반기 긴축경제 운영을 위해 3차례 큰 폭의 금리인상을 하였으나 2008년 하반기에는 글로벌 신용위기에 따른 경기둔화로 5차례의 금리 인하, 수출확대 및 민간소비 확대를 위한 경기 확대정책을 펴는 등 냉은 경제정책을 운용해 매우 분주한 한 해를 보내기도 하였다.
-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 경제(GDP)는 6.23%의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베트남 정부의 기존 8.5%의 목표는 물론 수정 목표인 6.5~7%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적이다. 2008년 하반기 글로벌 신용위기가 베트남의 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2009년 또한 지속적으로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2008년 1인당 GDP를 살펴보면 베트남이 US\$1,024 달러를 기록하며 UN의 최빈국 기준인 US\$960 달러를 최초로 상회하며 베트남 정부는 “최빈국 탈출”은 물론 “중소득 국가”(Middle Income Country)에 진입하는 놀라운 경제성적을 기록한 한 해로 평가된다.

주요 경제 지표

(단위: 억 달러)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경상GDP(US\$억)	453	528	609	715	890
1인당 GDP(US\$)	535	640	720	835	1,024
경제성장률(%)	7.7	8.4	8.2	8.48	6.23
산업생산증가율(%)	16	17.2	17	17.1	14.6
연간인플레이(%)	7.7	8.3	6.6	12.6	22.97
실업률(%)	5.6	5.3	4.4	5.02	4.6
환율(대 달러화)	15,808	15,855	16,000	16,050	16,989
수출(억 달러)	265	324.4	396.1	485.6	629
수입(억 달러)	319.5	369.8	444.1	626.8	804
외환보유고(억 달러)	70.4	73.9	120	200	230

자료: 베트남 통계청

베트남 산업 구조

가. 산업 개황

2008년 베트남의 산업생산은 총 395.6억 달러로 '07년 대비 14.6% 증가하였으나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15% 이상의 산업생산 증가율에 조금 미치지 못했다. 부문별로는 외국인 투자 부문이 159억 1,000만 달러, 민간부문이 136억 6,000만 달러, 국영부문이 99억 9,000만 달러 순이다. 증가율은 민간부문이 18.8%, 외국인투자부문이 18.6% 증가하면서 산업 생산을 주도하였고 국영 부문이 4.0%로 감소되어 부진의 원인이 되었다.

산업 부문별 생산액 및 증가율

(단위: %, 억 달러)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증가율	생산액	증가율	생산액	증가율	생산액	증가율	생산액	증가율	생산액
총 계	16	224.9	17.2	263.0	17.0	306.8	17.1	359	14.6	395.6
국영부문	11.8	83.6	8.7	90	9.1	97.6	10.3	107.6	4.0	99.9
민간부문	22.8	61.1	24.1	75	23.9	92	20.9	111.2	18.8	136.6
FDI부문	15.7	80.2	20.9	97.7	18.8	117.2	18.2	138.3	18.6	159.1

나. 주요 산업

1) 섬유산업

- 베트남 최대 제조업, 제2의 수출 품목으로 베트남 전체 GDP의 38%, 고용의 24%, 수출의 15%를 차지했다. 섬유제품 총 생산량 비중은 베트남기업이 45%, 외국인 투자기업이 55%이다. 베트남 기업의 74.2%를 국영기업이 차지했으며, 이 중 Vinatex가 42.4%를 차지했다. 또한 Vinatex는 자회사 61개에 10만 명을 고용했다. 주요 외국 투자국은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일본 등이다.
- 2007년도 수출액은 77억 8,000만 달러로 베트남 수출 총액의 16.1%를 차지했으며, 연간성장률은 20~30%에 달했다. 수출 대상국은 100여 개국이며, 최대 수출시장은 미국으로 전체 섬유의류 수출량의 57.4%를 차지했다. 하지만 원자재의 50% 이상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데 직물 및 원단 등은 80% 이상, 염료는 10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07년도 베트남 섬유의류 원부자재 전체 수입액은 22억 달러에 달했다.

2) 신발산업

- 베트남 제2의 수출 제조업으로, 연간 39억 9,000만 달러의 수출을 기록했으며 연간 50만명을 고용하고 있는 산업이다. 신발 생산량은 품목별로 스포츠 슈즈 약 2억 9,100만 족, 캔버스 슈즈 약 45백만 족, 숙녀화 약 100만 족, 기타 샌들 및 슬리퍼 8,400만 족 등이다. 신발 생산 총 기업 수는 약 390개사로 국영기업(37개사), 민간기업(195개사), 외투 기업(145개사), 합작 회사(14개사) 등이다. 최대 수출 시장은 유럽으로 전체 수출의 65%를 차지했다.

3) 석유화학산업

- 산유국이지만 정유공장이 없어 생산된 원유를 전량 수출하고 정유된 연료 및 석유화학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 2005년 기준으로 연료 및 석유화학제품 50억 2,000만 달러를 수입했으며, 향후 3년간 수입 수요는 지속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연간 4억 4,000만 달러 규모를 수출하여 9%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 중부 쯡꾸엣 지역에 25억 달러를 투자하여 정유공장이 건설되고 있으며, 2008년 완공되면 연간 650만 톤 정유능력, 베트남 총수요의 40%를 공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철강산업

- 연간 약 425만 톤을 생산하나 일관 제철소 부재로 연간 29억 달러 수입 수요가 존재한다. 한국은 연간 2억 3,000만 달러 수출로 8%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베트남에는 총 40개의 철강 공장이 있으며 베트남 철강공사(VSC) 산하에 14개 자회사 및 14개 합작 회사(이중 7개는 외국 기업과 합작사)가 운영되고 있다. 가공 공장 운영 중에서 5개만 이러한 큰 규모의 철강공장이다. 연간 450만 톤 규모 일관 제철소 건설 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나 수년간 지연되고 있으며 예산 부족, 기술파트너 수배 어려움, 경제성 없는 타케 광산 철 광석과의 사업 연계(철광석, 아연 성분 높아 고로 사용 불가)등에 기인하여 2007년에야 F/S 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포스코는 3개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남부 붕따우 지역에 1개 공장을 추가로 증설할 계획을 확정(10억 달러 소요 예정), 추진 중이다.

5) 이동통신산업

최근 베트남은 통신분야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특히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50~80%의 성장을 기록하여 세계 성장률 39%, 아시아 지역의 35%의 성장률과 비교할 때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2004년에는 한 해 판매량이 100만 대를 넘어섰으며 판매증가율

역시 83.1%로 대폭적인 증가를 기록했다. 이후 매년 판매량이 전해보다 100만 대씩 증가하여 2005년에는 252만 대, 2006년에는 398만대, 2007년에는 600만 대 판매 실적을 기록하며, '06년에 비해 각각 75.7%, 57.6%, 37%의 증가세를 시현했다. 베트남은 앞으로도 매우 유망한 시장으로 보인다. 베트남 통신부(Ministry of Post and Telematics)에 따르면 2007년 10월 말 기준 베트남 이동통신 총 가입자 수는 2,49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0%에 달했으며, 2008년에는 3,000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WTO 가입에 따라 시장개방이 이루어질 것이나 베트남 기업과의 합작투자 형태로만 시장을 개방하며 외국 투자자 지분도 49%로 제한하고 있어 최소한의 개방만을 허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6) 건설산업

- 건설 및 관련업종의 GDP 기여율은 약 18~19%(110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제 금융기관의 지원이 확대되고 석유자원 개발이 본격 착수됨에 따라 시장 선점을 위한 외국 업체의 진출 증가 및 산업육성을 위한 기초 인프라 건설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산업이다. 1990년대 초반부터 부동산 및 공단 개발 활성화, 도로, 철도, 전력 등 인프라 확충사업 강화로 베트남 수요가 확대되었다. 1997년 금융위기 이후 건설경기가 다소 침체되었으나 경기회복과 함께 건설 수요가 다시 증대되었다. 건설시장 규모는 11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며, 대형 원조사업과 일본 진출이 활발한 건설 엔지니어링 시장 규모는 6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공공 발주 대 민간 발주 비율은 50:50이다.

7) 전력산업

- 2007년 8월까지 베트남 전력생산은 '06년 대비 15% 증가한 380억 kWh를 생산하였으며 전체 10,044,849가구에 공급하였으며 전체 생산전력의 49%는 산업 및 건설용 수요로 41.5%는 일반소비 용도로 공급되고 있으며 전력 공급망을 살펴보면 도심 인근지역 98%, 외곽 농촌 지역이 97.8%의 전력공급 혜택을 보고 있다. 28개 주요 발전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11,540MW의 전력이 생산되고 있다. 2006년 전력 생산 비율은 수력 40%, 석탄 13%, 천연가스 38%, 중유 9%이며, 2010년까지 수력 41%, 석탄 24%, 천연가스 29%, 중유 6%로 석탄을 이용한 전력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발전소는 석탄(8개), 중유(4개), 천연가스(8개), 수력(8개)발전소가 있으며, 매년 15% 씩 전력 수요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여 2010년 25,000MW, 2020년 44,000MW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18개(전력공사 10개, 석탄 공사 7개, 기타 1개), 석유화력발전소 2개(전력공사 2개), 가스화력발전소 5개(전력공사 2개, 석유공사 3개)를 건설할 계획이며, 2025년까지 발전소 75개를 건설, 연간 50억 달러를 소요할 계획이다.

8) 오토바이 산업

- 베트남 오토바이협회(Vietnam Motorbike Association)에 따르면, 베트남 내 오토바이 생산기업은 총 20 여 개사로 이 중 대기업인 Honda, Yamaha, SYM, Suzuki, Lifan 5 개사가 전체 오토바이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했으며, 2008 년도에는 250 만 대가 생산·조립되어 '07년 대비 25%의 성장세가 전망되고 있다. 2006 년 베트남 오토바이 시장은 연간 200 만 대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2007 년에 더욱 확대되어 300 만 대 규모로 전망되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향후 10년 내 베트남 오토바이 시장은 2 배 이상 확대, 2007 년 1,800 만 대의 시장 규모에서 2015 년에는 3,100 만~3,500 만 대의 초 대형 오토바이 시장으로 급부상 전망이다.

9) 제약산업 현황

- 베트남 제약산업은 8,500 만 명의 소비자와 연평균 1.3%에 달하는 인구 증가율과 함께 빠른 속도로 소비자 수요층이 확대되면서 매년 15~17%의 성장세를 보이며 발전하고 있다. 2007 년 베트남 제약산업의 규모는 11 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며, 이 중 국내 생산은 '06년 대비 18% 증가한 5 만 6,000 달러로 전체 국내 수요의 49.7%를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02 년 국내 수요의 35%를 차지했던 베트남 국내 제약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한 것으로 파악했으나 2007 년에는 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기초원료 수입에만 1 억 6,040 달러를 지출하며 기초 원료의 해외 의존도 또한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이다. 이는 베트남 생산설비가 노후화되었으며 주요 생산의약품이 항생제로 전체의 46%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비타민 제가 19%를 차지하며, 전문의약품의 경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 제약산업은 경제호황에 따라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6 년 9 억 5,600만 달러 규모에서 올해 17% 성장한 1,110 억 달러로 추산되며 2011 년까지 매년 최소 14%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베트남 제약시장 전망: 2015 년 US\$ 230 억→2020년 US\$ 350 억)

10) 조선산업

- 2007 년 베트남 조선분야 총 생산액은 US\$18 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베트남 조선산업 매출의 70%이상을 차지하는 베트남 조선공사의 매출을 살펴보면 2007 년 '06년 대비 68%이상 증가한 US\$14 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된다. 베트남은 최근 3-4 년간 평균 70%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06 년 계약 수주액으로만 45 억불을 기록하며 높은 성장세이다. 베트남 조선 수출은 지난 97 년 싱가포르에 견인선 수출을 시초로 매년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0 년까지 전체 국제수주 및 수출이 US\$80 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내수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베트남 수출입 현황

가. 베트남 대외 교역 동향

(단위: 억 달러)

구분	2006	2007	2008	2009.1-3월
수출	398.3	485.6	629.1	134.8
수입	448.9	626.8	804.2	118.1
무역수지	-50.6	-141.2	-175.1	16.6

자료: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General Statistics Office

최근 높은 수출입 증가세와 함께 2008년도 총 교역규모는 1,400억 달러를 웃돌았다. 향후로도 베트남의 수출입 규모는 지속적인 확대 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세계시장의 수출품 수요감소로 인한 원부자재 수입감소로 일시적 무역수지 흑자가 전망된다.

나. 베트남 주요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백만 달러, 증감률%)

품목명	2006	2007	2008	2009.1-3월
금속, 보석제품	169(26.1)	201(18.9)	767(281.5)	2,287
섬유/직물제품	5,802 (19.9)	7,750(33.6)	9,108(17.5)	1,903
원유	8,323 (12.8)	8,488(1.9)	7,880(-7.2)	1,426
신발류	3,555 (16.9)	3,994(12.3)	4,697(17.6)	915
쌀	1,276 (-9.3)	1,490(16.8)	2,902(94.7)	783
수산물	3,364 (22.8)	3,763(11.9)	4,562(21.2)	714
커피	1,101 (49.8)	1,911(73.6)	2,022(5.8)	634
목제품	1,904 (21.8)	2,404(26.3)	2,779(15.5)	527
전기제품	1,770 (24.0)	2,154(21.7)	2,703(25.4)	496
석탄	927 (38.6)	1,000(7.9)	1,444(44.4)	262

자료: General Statistics Office

다. 베트남 주요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백만 달러, 증감률%)

품목명	2006	2007	2008	2009.1-3월
기계/플랜트 및 부품	6,555 (24.1)	11,123(69.7)	13,712(23.2)	2,383
유류제품	5,848 (16.4)	7,710(31.8)	10,888(41.2)	1,128
철강제품	2,905 (-0.8)	5,112(76.0)	6,566(28.4)	753
의류(원단)	2,954 (23.1)	3,957(34.0)	4,434(12.0)	761
전자제품 및 컴퓨터	2,055 (20.4)	2,958(43.9)	3,722(25.8)	616
플라스틱 원료	1,846 (26.8)	2,507(35.8)	2,924(16.6)	492
자동차, 부품 파트	759(166.9)	1,302(171.5)	2,442(87.5)	269
직물 및 의류 원부자재	1,959 (-14.2)	2,152(9.9)	2,376(10.4)	372
화학 원료	1,026 (18.6)	1,466(42.9)	1,768(20.6)	309
동물사료	731 (24.1)	1,302(78.1)	1,738(47.2)	248

자료: General Statistics Office

라. 베트남 주요 국별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증감률%)

순번	국가명	2006	2007	2008	2009.1~3월
1	미국	7,829(32.0)	10,090(28.9)	11,869(17.6)	1,460
2	스위스	155(49.0)	236(52.2)	517(119.0)	1,307
3	일본	5,232(18.6)	6,070(16.0)	8,538(40.7)	846
4	중국	3,651(42.0)	3,557(-2.6)	4,536(35.1)	532
5	싱가포르	1,631(-9.8)	2,202(35.0)	2,660(20.8)	339
6	필리핀	783(-5.5)	965(23.2)	1,825(89.1)	339
7	독일	1,445(32.9)	1,855(28.4)	2,073(11.8)	311
8	호주	3,030(2.3)	3,357(10.8)	4,225(18.8)	302
9	말레이시아	1,215(28.0)	1,390(14.4)	1,955(40.6)	298
10	한국	843(33.5)	1,253(48.6)	1,784(42.4)	216

자료: General Statistics Office

미국과의 무역협정 발효 직후인 2002년부터 대미 섬유/직물 제품 수출이 급증한 데 힘입어 2003년도부터는 미국이 베트남의 1위 수출국으로 부상했다. 스위스, 일본, 호주, 중국, 싱가포르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라. 베트남 주요 국별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증감률%)

순번	국가명	2006	2007	2008	2009.1~3월
1	미국	7,829(32.0)	10,090(28.9)	11,869(17.6)	1,460
2	스위스	155(49.0)	236(52.2)	517(119.0)	1,307
3	일본	5,232(18.6)	6,070(16.0)	8,538(40.7)	846
4	중국	3,651(42.0)	3,557(-2.6)	4,536(35.1)	532
5	싱가포르	1,631(-9.8)	2,202(35.0)	2,660(20.8)	339
6	필리핀	783(-5.5)	965(23.2)	1,825(89.1)	339
7	독일	1,445(32.9)	1,855(28.4)	2,073(11.8)	311
8	호주	3,030(2.3)	3,357(10.8)	4,225(18.8)	302
9	말레이시아	1,215(28.0)	1,390(14.4)	1,955(40.6)	298
10	한국	843(33.5)	1,253(48.6)	1,784(42.4)	216

자료: General Statistics Office

미국과의 무역협정 발효 직후인 2002년부터 대미 섬유/직물 제품 수출이 급증한 데 힘입어 2003년도부터는 미국이 베트남의 1위 수출국으로 부상했다. 스위스, 일본, 호주, 중국, 싱가포르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한-베트남 교역 현황

가. 한-베트남 교역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증감률%)

구 분	2006	2007	2008	2009.1-3(전년동기대비)
수 출	3,927(14.5)	5,760(46.7)	7,804(35.5)	1,321(40.9)
수 입	925(33.3)	1,392(50.5)	2,037(46.4)	421(-5.7)
무역수지	3,002	4,368	5,767	900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KOTIS)

한-베트남 총 교역량은 2000년도에 최초로 20억 달러를 넘어선 이래, 2008년에는 양국간의 무역교역량이 98억 달러에 달하며, 57억 7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2009년에도 흑자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전통적으로 한국은 베트남에 대해 무역수지 흑자국이다.

나. 한국의 대 베트남 품목별 수출 현황

(단위: 천 달러, 증감률%)

품 목 명	2006	2007	2008	2009.1-3(전년동기대비)
직물	639,949(7.1)	814,975(27.4)	989,165(21.4)	197,481(-9.1)
수송기계	169,795(46.9)	495,027(191.5)	696,304(40.7)	165,784(-39.1)
광물성연료	524,815(34.9)	1,293,378(146.4)	2,040,826(57.8)	145,028(-78.0)
철강제품	350,409(64.1)	359,095(2.5)	730,429(103.4)	125,841(-48.2)
석유화학제품	324,510(26.0)	447,547(37.9)	629,953(40.8)	120,312(-27.7)
산업기계	214,371(26.5)	285,066(33.0)	405,638(42.3)	69,551(-38.2)
정밀화학제품	167,202(21.8)	208,932(25.0)	254,739(22.0)	54,896(-4.4)
산업용전자제품	314,941(43.5)	246,985(-21.6)	185,521(-24.9)	53,980(10.1)
비철금속제품	212,512(73.7)	325,249(53.1)	259,739(-20.1)	42,891(-46.0)
섬유제품	123,417(13.6)	144,065(16.7)	189,622(31.6)	39,656(-2.6)

자료: KOTIS (MTI 2단위 기준)

한국의 대 베트남 수출 증가는 2001년 미-베 무역협정 발효 이후 한국의 현지 투자진출이 활기를 띠면서 이들 투자기업들의 각종 설비류/원부자재 수요증가에 힘입은 바가 크다. 최근에는 베트남 신도시 개발계획 추진 등 건축, 건설경기 활성화와 관련된 품목수출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주종 수출품목은 현지 투자기업 생산과 관련한 직물 등 섬유봉제 원부자재, 광물성연료, 수송 및 산업용 기계류, 석유화학, 철강제품 등이다.

다. 한국의 대 베트남 품목별 수입 현황

(단위: 천 달러, 증감률%)

품 목 명	2006	2007	2008	2009.1-3(전년동기대비)
광물성연료	46,511(84.8)	197,576(324.8)	331,793(67.9)	59,522(-29.5)
섬유제품	88,161(30.6)	113,210(28.4)	200,962(77.5)	58,157(44.6)
수산물	206,482(26.2)	267,769(29.7)	305,826(14.2)	56,919(-5.3)
농산물	87,479(34.3)	104,479(19.4)	177,848(70.2)	39,359(12.0)
섬유사	84,689(51.2)	113,100(33.6)	151,471(33.9)	35,900(-0.9)
신변잡화	83,406(54.0)	112,131(34.4)	137,600(22.7)	34,802(-7.9)
임산물	71,455(54.7)	99,628(39.4)	126,800(27.3)	18,877(-42.3)
가구	54,608(34.3)	64,398(17.9)	74,053(15.0)	14,779(-11.0)
수송기계	836(-16.5)	1,994(138.5)	37,238(1,768.0)	14,526(777.0)
가전용전자제품	10,589(-44.1)	27,884(163.3)	36,966(32.6)	11,041(14.8)

자료: KOTIS(MTI 2단위 기준)

www.globalwindow.org

한국의 대베트남 주종 수입품목은 광물성연료, 섬유제품(섬유사), 수산물, 농산물, 신변잡화, 임산물 등이다. 수산물, 농산물을 제외한 섬유직물제품, 신변잡화 등 공산품 수입은 주로 현지 한국투자기업들의 역수입이 주류를 이룬다.

한국기업 투자 현황

가. 최근 동향

2008년 말 누계 기준으로 2,059건, 162.7억 달러를 투자하여, 대만, 말레이시아, 일본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2008년 연간 기준으로는 대 베트남 투자세가 대폭 감소하여 293건 18억 달러로 9위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우리 기업들의 대 베트남 투자 감소는 투자 환경 변화에 따른 일시적인 투자 시기 조절 및 가성 투자의 감소 등 투자의 질적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의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라 미달러 기준의 투자 비용이 증가하고, 베트남 경제 여건 악화 및 베트남 동-달러 환율 상승에 따라 투자를 잠시 미루고 상황을 관망하는 'wait and see' 단계의 한국 투자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한 투자 상담 시 '베트남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느냐'를 물어오는 상담은 거의 없어졌으며, 일단 투자 신고를 하고 보자는 식의 막무가내식 투자도 줄어들었다.

최근 한국 기업의 대 베트남 투자 현황

(단위: 건, 백만 달러)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건수	149	171	170	190	207	406	293
자본	269.5	343.6	377.4	551.6	2,683.0	4,462	1,804
평균자본	1.8	2.0	2.2	2.9	12.9	10.9	6.2

자료: 베트남 계획투자부

나. 2008년 한국의 대 베트남 투자 동향

2008년도 우리나라의 대 베트남 투자 금액은 18억 400만 달러로 '07년 대비 60% 이상의 대폭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2006년 및 2007년에 집중되었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등 대형 프로젝트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07년 한국의 대 베트남 투자액 중 부동산 개발은 32억 달러로 전체의 67.3%에 달하는데, 이는 2004년 16.6%, 2005년 49.1%, 2006년 35.1% 대비 엄청난 증가세였다. 2007년 한국의 대 베트남 투자(금액 기준) 1~14위까지가 모두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였으며, 30대 투자 프로젝트 중 21개가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였다.

한편, 우리 기업들은 100% 단독 투자를 선호하는데, 합작투자에 비해 100% 단독 투자가 여러모로 편리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 베트남 산업별 투자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연번	산업	누계(1988.1.1~2008.12.22)		2008(1.1~12.22)	
		건수	금액	건수	금액
I	공업, 산업	1,521	8,911	175	609
1	경공업	433	3,824	71	201
2	중공업	897	3,518	44	176
3	식품공업	41	301	6	91
4	건설업	148	1,156	54	141
5	석유, 가스산업	2	112	0	0
II	농업, 수산업, 임업	94	170	3	2
6	농업, 임업	70	130	3	2
7	수산업	24	40	0	0
III	서비스업	444	7,187	115	1,193
8	교육, 건강, 문화산업	50	302	90	2
9	아파트, 사무실건설	3	776	7	623
10	호텔, 여행업	36	1,203	5	503
11	수송, 통신업	45	342	6	2
12	산업단지 개발	37	3,824	0	0
13	금융업	7	85	0	0
14	신도시개발	4	169	0	0
15	기타	262	486	7	65
	합계	2,095	16,268	293	1,804

자료: 베트남 계획투자부

지역별 투자를 살펴보면 호치민 시를 중심으로 한 남부 지역을 선호하여, 2007 년 한국 투자 기업의 69%가 호치민을 중심으로 한 남부 지역에 투자했으며, 지역별로는 호치민, 하노이, 롱안, 동나이, 다낭 순이다. 1 억 5,000 만 달러 이상 11 개 투자 프로젝트 중 9 개가 남부에 위치한다. 그러나 하노이를 중심으로 한 북부 지역 투자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베트남 비즈니스 Tips

가. 비즈니스 에티켓 및 상담 요령

1) 문화적 금기 사항

베트남은 그 시장이 확대 일로에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제 3국 진출을 위한 투자 대상지로서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따라서 현지인들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상담을 하는 경우, 그들만의 전통과 관습, 금기 사항을 미리 익혀둘 필요가 있다.

첫째, 베트남인들은 자존심이 강하다. 오랜 세월 끊임없이 자행되어 온 외침을 물리친 역사에 대해 민족적 자부심 또한 대단하다. 따라서 그들의 역사와 전통을 칭찬하는 것이 좋으며, 수입이나 생활비 문제 등 가난한 이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질문이나 이념, 정치 등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

둘째, 베트남의 경우, 더운 날씨로 인해 오후 업무에 소홀한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업체 방문 일정은 가능한 오전 시간으로 하고 오후 방문의 경우, 점심 식사와 낮잠 시간을 고려한 오후 2시 이후가 무난하다.

셋째, 베트남 사람들은 약속 시간에 대해 10~30분 늦을 때가 많다. 따라서 약속 시간에 조금 늦게 나오더라도 느긋하게 기다리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 최근 베트남은 오토바이 수요 증가와 곳곳의 신도로/확장공사로 인해 교통 체증이 상당히 심한 편이다. 특히 출근 시간(오전 7~9시) 및 퇴근 시간(오후 4~7시)의 도로는 쏘아져 나온 오토바이로 혼잡하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 이동할 경우, 약 20~30분 일찍 서두르는 것이 좋다.

2) 비즈니스 관계

□ 인간 관계 형성이 중요

베트남인과의 거래를 하려면 공식적인 절차 이외에도 상대방과의 개별 접촉을 통해 비공식적인 사적 관계를 형성해 두는 것도 중요하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모 기계 제조업체는 현지의 공장들을 부지런히 찾아 다니면서 고장 나 멈춰 있는 기계를 직접 수리해 주기도 하고, 기술적 조언도 아끼지 않는 등 인간적인 유대 관계를 높이는 데 주력하여 안정적인 거래선을 확보하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현지 인맥을 잘 활용하면 거래 시 수시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애로 사항을 해결하는 데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 중요한 계약이나 협상 건이라면 일단 대규모 사절단을 파견하도록 한다. 사실상 몇몇 소수만의 발언권 및 의사 결정권이 있는 상황이라 해도 대규모 사절단이 파견되면 자신들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 선물은 중요한 거래 수단

유교 문화권의 베트남 민족은 정이 많은 민족이다. 인맥을 통해 많은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점도 바로 한국인과 비슷한 정서를 지녔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선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업체 방문, 바이어 상담 시 작은 기념품 등을 준비하는 것은 정감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좋은 촉진제가 될 수 있다.

나. 상담 시 유의 사항

1) 상담 시 조급함은 금물

베트남 기업인과의 상담에는 느긋한 자세로 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베트남 기업의 70~80% 정도가 국영 기업이기 때문에 개인 기업과는 달리 의사 결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신속한 업무 진행과 의사 결정을 바라는 한국 기업들은 이 때문에 조급해 하고 서두르는 나머지 상담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경우가 있다.

2) 매사를 분명하게

베트남 바이어들과 계약을 하면 그 계약 내용이 완전히 이행되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 이미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서도 느닷없이 합의 사항을 취소하겠다는 일방적인 요구를 해 오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 당황하거나 흥분하지 말고 그 내용은 취소될 수 없으며 너무 많은 내용이 변경될 수 없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나가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또한 비즈니스 상담을 하다 보면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미처 얘기를 다 끝내지 못하고 다음 기회로 미루게 되는 경우가 많다. 길고 힘든 협상으로 다소 피곤하더라도 대충 끝내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합의된 사항, 다음 회의 날짜, 장소, 안건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3) 여성 지위 존중의 사회 구조

베트남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가 활발하며, 상담 시 여성에 대한 예절이 매우 중시된다.

4) 의사 결정

베트남에서 협상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심이다. 베트남 바이어의 경우 가격 조건 등 계약서 체결 전 모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고, 사소한 계약 조건을 고치는 데도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편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개인 기업을 제외한 베트남 기업의 대부분은 계약 시 단독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다른 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사 결정이 느린 편이다.

다. 계약 체결 시 유의할 점

1) 효과적인 협상 전략

원칙에 준한 협상

- 사람을 문제로부터 배제시켜야 한다.
- 이해 관계에 집중해야 한다.
- 최종 결론을 내리기 전에 여러 가지의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결론이 객관적인 기준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WIN/WIN 협상

WIN/WIN 결과가 나오기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쌍방이 만족하는 협상이 될 경우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최대한 많은 정보 보유

시장 동향, 가격 정보, 수요/공급현황, 경쟁사 정보 등을 미리 수집해야 한다.

2) 베트남에서의 효과적인 상담 방법

동류 의식 자극

한국과 같은 유교 문화권으로서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음을 화제로 삼아야 한다. 조상을 숭배하는 제사 문화나 음력 설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간단한 베트남어 정도는 준비할 것

간단한 인사말(* 신짜오: 안녕하세요, 캄언: 감사합니다, 콤꼬치: 천만에요, 콤사우: 감사합니다, 핸감라이: 또 만나요 등) 정도는 사전에 준비하여 상담 시 적당한 기회에 사용한다면 상담의 효과가 증가될 것이다.

서두르지 말 것

대부분의 거래선이 국영 기업체이며, 아직까지 사회주의 SYSTEM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 의사 결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프로젝트 관련 부서가 많고, 어느 한 사람이 책임지고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회와 같은 프로젝트 전담팀이 구성되며, 상급 승인 기관이 많아 짧은 기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여 서두를 경우 상당 부분의 양보가 불가피하다.

다. 계약서 작성 시 유의 사항 및 계약 사례

□ 신용장 개설 은행에 주의할 것

- 한국에서 인수 가능한 은행에 준해야 한다. 베트남 4대 국영 은행 및 외국계 합작 은행의 경우는 큰 문제가 없다.
- 한국 내 Nego 은행에서 Confirm을 요구하는지의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은행 측의 인수 거절 여부도 주의해야 한다.

□ 베트남 4대 은행

- Viettin Bank(상업은행)
 - 주소: 29 Ben Chuong Duong St., Dist.1, HCMC
 - 전화: (84-8)3823-0310
- Incom Bank(산업은행)
 - 주소: 79A Ham Nghi St., Dist.1, HCMC
 - 전화: (84-8)3829-0491
- Bank for Agricultural(농업은행)
 - 주소: 2A Pho Duc Chinh St., Dist.1, HCMC
 - 전화: (84-8)3822-2752
- Bank for Investment & Development(투자개발은행)
 - 주소: 117 Nguyen Hue St., Dist.1, HCMC
 - 전화: (84-8)3821-4928

□ 시황에 민감한 품목의 경우 대상 수요처 선정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시황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한 품목의 경우, 계약서 체결 시 안전 장치를 취해서 계약을 추진해야 한다. 철강의 경우, 시황에 민감한 품목인 BILLET의 가격이 떨어질 시 바이어 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시황에 민감한 품목은 가능한 실수요자 위주의 판매가 권고된다.

□ UNDER VALUE 처리

수입 관세를 줄이기 위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차액에 대한 합법적인 송금은 불가하며 따라서 이에 대한 사전 장치 마련 후 계약 진행이 필요하다.